

石油의 불꽃이 꺼져 가는가

李 紀 勳

〈産業研究院 動向分析室 研究員〉

目 次

1. 머리말
2. 最近의 油價動向
3. 世界石油市場의 版圖變化
4. 苦戰하는 中東經濟
5. 向後 油價展望
6. 맺음말



1. 머리말

石油에 관한 한 많은 石油專門家들의 예측이 적중하지 못했다. 예컨대 지난 70년대 초 石油은 앞으로 계속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풍부하게 공급될 것이라는 기대는 두 차례의 石油波動으로 물거품이 되었고 石油波動 이후에는 油價가 배럴당 100 달러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강력히 대두되었으나 아시다시피 최근 油價는 하락국면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70년대에 기고만장하던 石油輸出國機構(OPEC)도 이제는 병든 사자가 되었는지 油價下落에 속수무책이다. 石油王國이라던 사우디 아라비아를 비롯한 대부분의 中東產油國들이 石油收入 감소로 심각한 經濟難에 봉착해 있다.

대부분의 石油專門家들은 앞으로도 수년간은 油價가 弱勢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태까지 적중하지 못했던 石油에

관한 展望이 이번에는 들어맞을 것인지는 神만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건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두 차례의 石油波動을 경과하면서 맹렬히 타올랐던 石油의 불꽃이 과연 꺼져갈 것인가. 本稿에서는 최근의 油價下落勢와 그 원인을 살펴보고 油價下落勢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진행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最近의 油價動向

周知하고 있는 바와 같이 石油價格은 現物市場에서 市場原理에 의해 결정되는 現物價格(Spot Price)과 OPEC의 카르텔價格인 公示價(Official Selling Price) 그리고 非OPEC 產油國들의 輸出價格(Exporting Price)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競合關係에 있으므로 한쪽의 가격이 하락하면 나머지 가격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油價下落은 現物市場에서 現物價格이 公示價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 非OPEC 產油國들이 自國產石油輸出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輸出價格을 인하하고 나중에 OPEC이 公示價를 인하하는 패턴으로 진행되어 왔다.

금년에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現物油價는 금년 1월 말 OPEC 定期總會를 전후한 때부터 4월 말까지 예상외의 강한 회복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크게 하락하여 公示價와는 배럴당 2~3달러를 밑도는 가격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現物油價弱勢로 인해 非OPEC 石油輸出國들이 잇달아 油價를 인하하고 나섰다. 사우디의 石油輸出激減으로 최근 世界最大石油輸出國으로 부상한 蘇聯은 지난 5, 6월에 이어 7월에도 자국산 輸出油種인 Urals 油의 價格을 배럴당 25.5달러로 50센트 인하함으로써 최근 3개월만에 무려 배럴당 2.5달러나 인하하였다.

世界油價形成에 영향력이 큰 北海產油國인 영국과 노르웨이는 지난 6월까지 公示價를 現物油價에 연동시켜 매월 인하하였으나 7월부터는 公示價制를 포기함으로써 아예 現物油價대로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월 17 일에는 OPEC 會員國이 아니면 서도 OPEC의 價格政策을 지지해 온 멕시코가 重質油인 Maya 油價를 배럴당 25.5달러에서 24달러로 1.5달러 인하함으로써 최초로 重質油價를 인하한 나라가 되었다. 이밖에 이집트, 오만 등 대부분 非OPEC 產油國들이 油價를 인하하였다.

경쟁관계에 있는 非OPEC 產油國들의 油價引下로 公示價引下가 불가피해진 OPEC 은 지난 7월 22일부터 4일간 스위스의 제비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公示價 인하를 단행하였다. 그 내용은 사우디產 重質油(Arab Heavy Crude)와 中質油(Arab Medium Crude) 公示價를 각각 배럴당 50센트, 20센트 인하함으로써 OPEC의 加重平均公示價를 배럴당 14센트 인하한다는 것이다.

OPEC이 公式의으로 油價를 인하한 것은 이번이 OPEC 史上 세번째이다. 지난 83년 3월에는 基準油(Bench Mark Crude)인 사우디產 輕質油(Saudi Arabian Light) 公示價를 배럴당 5달러나 인하하였으며 금년 1월에는 이를 다시 배럴당 1달러 인하한 바 있다. 지난 73년 배럴당 3.39달러에서 81년 34.5달러로 10배 이상 폭등하였던 OPEC 平均 公示價는 현재 27.96달러로 81년보다 20%나 하락하였다. 그동안의 物價上昇率을 감안할 경우 實質油價는 81년에서 84년까지에 35% 이상 하락한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美國 이외의 지역에도 공통된 현상은 아니다. 原油代金の 國際決濟通

貨인 달러貨가 80년대 들어 현저한 강세를 보임으로써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낸 달러 이외의 通貨로 표시할 경우 油價는 오히려 상승하기도 하였다.

日本의 경우는 81년부터 84년까지 油價가 엔貨로 10% 하락한 데 불과하며 西獨이나 英國, 프랑스의 경우 油價가 自國通貨로는 오히려 각각 5%, 26%, 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世界石油市場의 版圖變化

80년대 들어 油價가 下落局面으로 접어들게 된 것은 世界石油市場을 둘러싼 여건이 지난 70년대와는 판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需給面에서 보면 世界石油需要는 70년대에는 10년만에 40%나 증가하였으나 80년대 들어서는 매년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왔으며 반면에 OPEC 國家들의 과잉 생산설비가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非OPEC 國家들의 石油增產이 꾸준히 진행됨에 따라 石油의 供給過剩現狀이 심화되고 있다. 市場支配力이란 측면에서 보면 OPEC 은 世界石油市場에서의 占有率이 크게 저하된 데다 現物市場의 저성장으로 인해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市場에서 需給에 의해 決定된 市場價格에 OPEC이 추종하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會員國間의 利害相衝으로 OPEC 協定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등 結束力弱화도 OPEC의 카르텔 기능을 잠식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 深化되는 石油 供給過剩

世界石油需要는 지난 79년에 하루 5,240만 배럴에서 83년에 4,520만 배럴로 감소하였다. 84년에는 하루 4,610만 배럴을 기록 5년만에 처음으로 世界石油需要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英國石炭勞組의 파업이나 世界的인 酷寒과 같은 일시적인 需要增大要因을 제외하면 그 증가 폭은 극히 미미하다.

OPEC의 石油收入 推移

〈表-1〉

(單位：億달러)

	1974	1978	1980	1981	1982	1983	1984
사우디아라비아	226	575	1,020	1,132	760	461	437
U. A. E	55	129	195	187	160	128	130
쿠웨이트	70	167	179	149	100	99	108
이란	175	191	135	86	190	217	167
이라크	57	213	260	104	95	84	104
카타르	16	36	54	53	42	30	44
나이지리아	89	166	256	183	140	101	124
리비아	60	152	226	156	140	112	104
알제리	37	75	125	108	85	97	97
베네수엘라	87	135	176	199	165	150	137
인도네시아	33	89	129	141	115	99	112
가봉	-	14	18	16	15	15	14
에쿠아도르	-	10	14	15	12	11	16
OPEC 計	905	1,952	2,788	2,529	2,019	1,604	1,594

資料：Petroleum Press Bureau Ltd, Petroleum Economist, July 1985.

금년 상반기 중에도 세계석유수요는 前年同期比 1.5% 감소한 하루 4,560만 배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난 79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세계석유수요는 하루 680만 배럴이 감소하였다.

世界石油需要의 감소원인으로는 70년대의 두 차례 石油波動에 따른 高油價 및 供給不安으로 인해 각국이 代替에너지의 사용을 늘리고 에너지節約을 적극 추진하였다는 점을 주로 들 수 있다.

각국이 石油代替에너지의 사용확대에 주력한 결과 世界全體 에너지消費中 石油가 차지하는 비중이 79년에 45%에서 83년에는 40%로 현저히 낮아졌다. 반면에 石炭과 原子力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8%, 2%에서 30%, 4%로 높아졌다. 또한 에너지低消費型産業의 발달과 製品의 小型多機能化(이른바 輕薄短小化) 등에 의한 에너지節約의 진전도 石油需要減少의 큰 요인이다.

OECD의 경우 石油/GDP 比率(GDP 單位當 石油消費量)을 79년을 100으로 할 경우 84년은 74.7로 나타났다. 즉 GDP 한 單位生

산에 소요되는 石油의 量이 지난 79년보다 84년에 25%나 줄어들었다는 계산이다.

世界石油需要는 크게 감소하였으나 非OPEC 産油國들의 石油供給은 그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왔다. 共產圈에서 自由世界로의 純輸出을 포함한 非OPEC 産油國들의 石油供給은 지난 79년에 하루 2,210만 배럴에서 84년에 2,740만 배럴로 증가하였다.

世界石油需要의 감소나 非OPEC 産油國의 供給增加는 자연히 OPEC의 供給減少를 가져왔다. OPEC의 石油供給은 지난 79년 하루 3,160만 배럴에서 84년에 1,840만 배럴로 격감하였다. 따라서 OPEC은 막대한 過剩生産設備를 보유하고 있었다.

저명한 石油關係專門誌인 週刊石油情報誌(P-IW)에 의하면 OPEC 전체의 최대 생산능력은 하루 2,683만 배럴로 추정되고 있는데 85년 7월 현재 OPEC의 석유생산량이 하루 1,420만 배럴 정도에 불과하므로 設備稼動率은 52%에 불과한 실정이다.

2) OPEC의 市場支配力 弱화

이러한 OPEC의 供給減少로 세계 전체 石油供給에서 OPEC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년에 59%에서 84년에 41%로 크게 줄어들었으며 오히려 非OPEC 産油國의 비중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石油現物市場이나 先物市場(Futures Market)이 급성장하고 있다. 작년에 現物市場에서 거래된 石油의 物量은 전체 石油交易量의 20~30%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83년 3월 뉴욕商品去來所(NYMEX; New York Mercantile Exchange)와 시카고商品去來所(CBT; Chicago Board of Trade)에서 처음 시작된 原油先物去來는 去來規模가 급격히 증가하여 NYMEX의 경우 84년에는 하루 700만 배럴에 달하였으며 금년에는 하루 2,000만 배럴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OPEC의 하루 산유량보다도 더 많은 셈이다.

이처럼 OPEC의 市場占有率이 줄어들는데다 石油現物·先物市場이 급성장함에 따라 OPEC이 世界石油市場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오히려 自由競爭市場에서 需給關係에 의해 결정된 市場價格을 OPEC이 뒤쫓아가는 형태가 되고 있다.

OPEC이 世界石油市場에서의 支配力을 점차 잃어가고 있는 원인은 OPEC 자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OPEC 各會員國들은 石油收入의 감소로 인해 대부분 심각한 經濟難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石油收入의 極大化를 위해 스스로 결정한 生産限度를 무시하고 增産하거나 公示價 이하로 割引販賣하는 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다. 中東經濟調查誌(Middle East Economic Survey) 최근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OPEC 會員國들이 갖가지 편법으로 價格을 割引, 거의 現物價格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OPEC 전체 수출량의 70~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PEC 各國들은 부과된 生産限度나 公示價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바터거래(Barter Deal)를 크게 늘리고 있다. 지난해 10월에 하루 130만 배럴에 달했던 OPEC의 바터거래는 금년 들어 OPEC 전체 생산량의 15%에 해당

하는 하루 250만 배럴로 늘어났다.

이러한 OPEC 各國의 協定違反事態가 OPEC의 카르텔 機能弱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4. 苦戰하는 中東經濟

지난 80년 초까지 한때 하루에도 1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벌어들인 石油收入을 바탕으로 中東經濟는 착실한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막대한 經常收支 黑字를 기록하였고 오일 달러(Oil Dollar)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겨나게 하였는데 오일 달러의 위력은 國際金融界의 판도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中東産油國들의 石油收入은 油價下落과 아울러 世界石油需要減少로 80년 이후 크게 감소하고 있다. OPEC의 石油收入은 지난 80년 2,786억 달러로 최고조에 달한 뒤 지난 83년에는 1,604억 달러로 무려 40% 이상 감소하였다.

특히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우 81년에 1,132억 달러에 달했던 石油收入이 83년에는 이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461억 달러로 격감하였다. 이란·이라크戰爭으로 石油輸出이 격감한 이라크의 石油收入도 80년 260억 달러에서 83년 99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世界景氣의 활발한 回復에 힘입어 世界石油需要가 다소 증가함에 따라 매년 크게 감소되어 오던 OPEC의 石油收入이 가까스로 감소추세를 벗어날 수 있었다. 즉 지난 84년에 OPEC全體 石油收入이 1,594억 달러로 그 전년보다 10억 달러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石油收入減少로 總輸出額의 90% 이상을 石油에 의존하고 있는 中東産油國들의 經常收支는 대부분 黑字에서 赤字로 돌아섰다. OPEC의 經常收支는 80년 965억 달러의 黑字에서 그 이후 黑字幅이 감소되다가 82년에는 156억 달러의 赤字를 기록하였으며 83년에는 276억 달러로 赤字幅이 확대되었다.

1) 緊縮으로 難局打開 努力

OPEC은 이러한 經濟難局을 타개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우선 확대되는 財政赤字를 축소하기 위해 緊縮政策을 실시하고 있다.

各國政府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행을 중단 또는 연기하는 등 의욕적으로 채택하였던 經濟開發計劃을 縮小修正하는 한편 기존 설비에 대한 維持 및 補修(O & M)에 대한 支出은 계속되 불요불급한 政府支出을 최대한으로 억제하고 있으며 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의 인상 등으로 政府財政收入을 증대시키고 있다.

83년 이후 사우디, 카타르, U. A. E 등에서는 휘발유 가격을 인상하였다. 또한 U. A. E 에서는 83년 말에 公務員을 대량해고한 것을 비롯해 84년에 우편요금의 인상, 外國人의 의료비 有料化를 실시하였다.

國際收支의 악화로 輸入을 억제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례로 나이지리아의 경우 84년에 전품목이 輸入許可制가 되었으며 베네수엘라에서는 關稅引上 등을 통해 2,000여 품목의 輸入을 규제하고 있다.

中東產油國들의 外國人 勞動者에 대한 政策도 바뀌고 있다. 73년부터 80년 초까지 石油暴

으로 中東產油國들에는 印度, 파키스탄, 필리핀, 韓國 등 아시아 국가들과 이집트 등 低所得 아랍국가들로부터 많은 근로자가 유입되었다.

U. A. E의 경우 68년 당시 18만이었던 人口가 海外勤勞者의 유입으로 83년에 119만명으로 무려 6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外國人의 급증현상이 이슬람사회의 전통과 질서 유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강하게 일어났으며 여기에서 石油收入의 급격한 감소로 雇傭機會가 급격히 줄어들자 富의 海外流出을 防止한다는 경제적 이유도 작용해 外國人 勞動者를 축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5월 초 페르시아만 協力委員會(GCC) 勞動相會議가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렸으며 여기에서 海外勤勞者規制와 勞動關係法의 統一 등에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 관련 프로젝트 등의 감소로 GCC 6개국에서 앞으로 5년 동안에 취업인구는 100만명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각국의 인구증가와 자국민 우선고용 움직임을 생각하면 취업기회가 감소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해외근로자를 감축시킬 것으로 예상

와튼計量經濟研究所(WEFA)의 自由世界 石油需給¹⁾ 展望

〈表-2〉 (單位: 百萬배럴/日)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소 비								
OECD	29.38	29.87	30.04	30.28	30.90	31.63	32.32	32.50
OPEC	4.40	4.50	4.51	4.80	5.04	5.25	5.49	5.74
기타 개도국	8.79	9.04	9.19	9.70	9.99	10.23	10.57	10.94
계	42.57	43.41	43.74	44.77	45.93	47.12	48.38	49.18
공 급								
OECD	15.93	16.61	17.03	16.98	16.92	16.87	16.78	16.68
OPEC	17.56	17.58	16.54	17.31	18.23	19.26	20.47	21.14
비 OPEC 개도국	6.85	7.34	7.78	8.04	8.26	8.47	8.66	8.83
개도국 NGL	1.36	1.35	1.36	1.37	1.38	1.39	1.40	1.41
共產圈 純輸出	1.03	1.08	1.06	1.15	1.20	1.24	1.28	1.32
其他	-1.7	-5.5	-0.1	-0.8	-0.5	-1.0	-2.0	-2.0
計	42.57	43.41	43.75	44.77	45.93	47.12	48.38	49.18

註: 1) 液化天然가스(LNG) 포함.

資料: Wharton Econometric Forecasting Associates,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85.

된다.

그러나 급속도로 외국인 노동자를 축출하고 자국민을 우선고용한다 하더라도 전문직에 대해서는 아직 外國人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U.A.E에서는 엔지니어, 의사, 교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직의 경우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장기체류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처럼 용이하게 自國民으로 대체할 수 없는 部門이 상당하므로 中東產油國의 海外勤勞者減縮에도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中東產油國들은 外國企業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自國企業을 육성하려는 정책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U.A.E 정부가 공포한 會社法에 따르면 自國內에 설립되는 法人의 資本金 50% 이상을, 合作法人일 경우는 100%를 自國資本이 차지해야 한다.

사우디의 경우 ①非사우디企業이 受注額의 30%를 사우디企業에 下都給할 것을 의무화한 30% 規定(30% rule)을 83년 3월에 제정하였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업체를 확대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며 ②防衛産業이나 尖端産業 등 특정분야에 있어서 自國産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분야에 참여하는 外國企業으로 하여금 受注額의 30~35%는 사우디企業과 合作으로 이 분야에 再投資하도록 규정한 相殺投資計劃(Offset Investment Programme)도 점차 전산업으로 확대적용할 가능성이 높고 ③國產品優先購買政策(Buy Saudi Policy)에 의해 製品, 建設資材 및 裝備의 국산품 사용을 늘리며 公共프로젝트는 自國業體에 優先受注權을 주고 있고 自國産 製品과 競合되는 輸入商品에 대해서는 關稅率引上 등 保護主義 性向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中東產油國들의 노력은 최근들어 지표상으로 상당한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83년에 276억 달러로 확대되는 등 악화일로에 있던 經常收支의 赤字幅이 84년에는 129억 달러로 前年比 5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우디, 이란, 인도네시아 등의 赤字幅이 많이 축소되었다. 또한 금년에는 赤字幅이

더욱 축소되어 100억 달러 정도의 赤字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 向後 油價展望

과연 石油의 불꽃은 꺼져 갈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世界石油需要는 여전히 부진한 가운데 非OPEC의 供給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供給過剩現狀은 좀처럼 해소되기 어려운 전망이다.

또한 會員國間의 利害相衝으로 OPEC의 카르텔機能이 弱화되고 있어 油價弱勢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豫測機關에서는 油價가 폭락하여 배럴당 20달러 혹은 그 이하로도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80년대 말 경부터는 世界石油需要가 증가추세를 보일 것인 반면 非OPEC產油國의 石油生産은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어서 供給過剩現狀은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OPEC이 다시 世界石油市場에서의 영향력을 회복하게 되어 油價가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0년대에는 石油의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1) 向後 2~3年間 油價弱勢 展望

重質油 公示價만 배럴당 50센트 인하하기로 한 지난 7월 말 OPEC 定期總會의 결정은 石油市場安定化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첫째, 이번 인하조치로 平均公示價가 불과 배럴당 14센트 인하되는데 그쳐 아직도 現物油價와 公示價와의 가격격차가 크며 둘째, 世界石油市場에서 比重이 높은 輕質油 公示價의 인하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고 셋째, 供給過剩을 해소하기 위한 OPEC 生産限度의 減縮措置 채택에 실패하였으며 넷째, 이번 決定도 滿場一致가 아니고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多數決에 의해 결정되는 등 OPEC의 結

束力 弱화가 露出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總會결과가 市場安定은 물론 개별 會員國의 國內經濟問題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사우디,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등은 독자적인 生産増大와 油價引下를 감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에쿠아도르는 自國産 오리엔트(Oriente)油 公示價를 배럴당 1.2~1.7 달러 인하하였으며 베네수엘라도 自國産 重質油 公示價를 배럴당 1.95 달러를 인하하였다.

최근 産油量이 하루 250~260만 배럴로 격감한 사우디는 지난 7월 임시총회에서 生産調整國(Swing Producer)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사우디는 自國에 할당된 生産限度인 하루 435만 배럴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야마니(Yamani) 사우디 石油相은 금년 8월에는 産油量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나 가을까지는 生産限度를 모두 생산할 것이라고 거듭 공언하였다. 실제로 사우디도 財政赤字를 補填하기 위해 産油量을 늘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油價는 또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OPEC 관계자들은 그동안 중단되었던 西方石油會社들의 在庫備蓄需要가 증대되고 금년 4/4분기 이후 暖房油需要가 늘어나는 季節的 盛需期에 접어들면 油價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夏節期 동안 다소 감소되었던 北海油田의 生産이 가을부터는 다시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이라크가 오는 9월에 紅海沿岸에 이르는 石油파이프 라인 建設의 완공을 계기로 하루 50만 배럴의 수출능력을 추가로 갖게 된다.

또한 中東産油國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건설해 온 대규모 輸出用 精油工場들이 최근 완공되어 본격가동됨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石油製品의 수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최근 保合勢에 머물러 있는 現物油價가 연말까지 배럴당 1~

2달러 정도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OPEC도 오는 10월의 임시총회나 4/4분기 중에 公示價를 배럴당 1~2달러 인하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

실사 OPEC이 公示價를 현행대로 고수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割引販賣의 성행으로 公示價보다 낮은 現物價格대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油價가 하락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石油製品의 價格에서 原油를 輸送하여 精製하는 데 든 費用을 제외한 精製價值(Netback Value)대로 原油를 판매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精油業者에게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줄 수 있으므로 産油國들이 精油業者들로부터 需要를 확보하기에 용이하나 公示價보다는 상당히 낮은 가격수준이다. 精製價值대로 販賣하는 방식은 이란에 이어 카타르, 에쿠아도르, 베네수엘라 심지어는 사우디까지 채택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는 86~87년까지는 세계경제가 크게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世界石油需要는 0~1% 정도의 미미한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86,87년에 또다시 油價가 배럴당 1~2달러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油價가 배럴당 20달러 혹은 그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은데 그 나름대로 상당한 설득력을 내포하고 있다. 油價가急落할 것으로 보는 것은 현재의 供給過剩狀態가 지속되어 야기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사우디가 급격히 증산하거나 심각한 外換不足에 직면한 여타 OPEC 會員國들이 生産限度를 무시하고 초과 생산하여 극단적인 價格割引으로 油價急落을 자초할 가능성이 크며 OPEC이 非OPEC 産油國에 빼앗긴 市場占有率을 회복하기 위해 油價를 의도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價格戰爭(Price War)을 일으켜 非OPEC 産油國들을 궁지에 몰아넣고자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라크 등의 石油파이프 라인 増設로 인한 石油輸出能力増大, 이로 인한 쿼타配分을 둘러

展望機關別 OPEC 平均公示價 推移 및 展望

〈表-3〉 (單位: 달러/배럴)

	1975	1980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DRI	11.02	30.46	28.58	27.77	26.75	26.51	28.00	30.00	32.50
WEFA	11.02	30.90	29.09	27.72 (23.50)	27.48 (20.00)	27.54 (20.00)	29.16 (22.38)	30.77 (24.95)	32.54 (27.90)
NIESR	-	-	29.19	28.75	30.76	-	-	-	-

註: ()는 低油價시나리오에 의한 展望値임.

資料: DRI, European Long-Term Review, July 1985.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85.

NIESR, National Institute Economic Review, May 1985.

싼 OPEC의 內紛, 이란·이라크戰이 종식될 경우 전쟁복구를 위한 생산증대 등도 油價急落要因으로 지적된다.

2) 長期的으로는 油價 上昇展望

이처럼 油價가 향후 2~3년간은 弱勢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나 長期的으로는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展望이 지배적이다.

특히 現在의 油價下落勢가 현저할수록 油價下落으로 石油消費가 촉진되어 油價上昇時期는 앞당겨지고 上昇幅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世界石油需要는 오는 90년까지 1% 정도의 增加率을 보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非OPEC 産油國들은 지속적인 探查 油田開發努力으로 80년대 말까지는 꾸준히 生産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 OPEC에 대한 石油需要가 90년까지는 현저히 증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油價上昇率은 87년 이후 90년까지는 物價上昇率보다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0년대부터는 非OPEC 産油國들의 石油生産이 줄어들고 OPEC이 다시 世界石油市場에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90년대부터는 油價上昇率이 物價上昇率을 웃돌아 實質油價가 매년 2~3%의 上昇率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6. 맺음말

油價下落은 産油國經濟와 開途國 外債問題의 해결에는 不利한 작용을 할 것이지만 世界經濟全體의 成長이나 우리나라 經濟에는 유리할 것이다. 대체로 油價가 10% 하락하면 先進國全體로는 成長率이 0.5% 포인트 정도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油價가 10% 정도 하락할 경우 輸入增加, 中東輸出減少, 海外建設萎縮 등의 부정적 측면도 있으나 石油輸入負擔의 경감, 對先進國 輸出增大, 內需振作 등의 긍정적 효과가 더 커서 實質成長率이 1% 포인트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短期的으로는 油價가 弱勢를 못 면할 것이나 長期的으로는 다시 上昇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파리에서 열린 國際에너지機構(IEA)의 閣僚理事會는 현재 石油需給이 完化되어 있으나 향후 10년내에 다시 緊박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에너지供給安定을 위한 政策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에너지政策은 단시일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금과 같이 市場이 안정되어 있을 때 적절히 실시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企業은 에너지節約을 통한 原價節減으로 對外競爭力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